

自己完成의 刻苦만이……

朴 性 圭

建築設計事務所 하나그름

시골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절반을 훨씬 넘게 도회에서 보낸 처지이나, 결혼 후 분가를 해도 본적을 고향에 그냥 두고 있음은 아직도 마음의 뿌리를 그 곳에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고향을 이야기 할 때, 고향마을이나 집값이 구체적인 환경으로 이해하고, 어렸을 때 부지불식간에 경험한 건축적 환경이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집을 설계한다는 어려움이 바로 이러한데 연유하는 까닭이다.

나의 생각은 약 240년 전 우리 6대 조께서 지으셨고, 지금 고향을 지키고 있는 내 조카와 그 아이까지 8대째 한 집에서 살아오고 있다. 사랑채와 안채는 비워두고 조카내외가 살고 있는 별당은 방 2개와 대청, 그리고 樓마루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집안의 자제들이 공부하던 곳이다. 원형은 보존한채 내부를 생활에 편리하게 고쳐, 썩 훌륭한 살림집으로 쓰고 있다. 갖가지 삶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의 보편성을 추구한 선인들의 지혜를 새삼 느끼며, 자잘한 생활의 도구들은 200년 전과 달라도 삶의 모습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따라서 그 생활을 감싸고 있는 그릇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겠다. P. 블레이크는 그의 저서에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근대건축의 신조를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들이야말로 벌써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요즘에는 주요민속자료로, 지방문화재로 선정이 되어 그 방면에 관심있는 학자와 학생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방문도 잦아 건축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내게는 그런 객관적인 대상 이전에 끈끈한 감정으로 엮어진 곳으로, 귀소본능의 대상으로서, 생활을 담는 그릇, 그 이상의 것이다.

내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옛 집을 생각하듯,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적어도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생활을 감싸주는 환경으로서 어떻게 정감을 붙여넣을 수 있겠는가. 학교를 졸업한 후 20여년, 한 길을 걸어 오면서 해

놓은 일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우며 두려운 생각만 든다.

인간생활의 본질은 별로 달라질바도 없는데, 요즘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어렸을 때와는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갖가지 주거의 유형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전시장 같은 곳이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타입의 소위 「빌라」형 고급 연립주택, 중층아파트 그리고 고층아파트……

일요일 오후 5층짜리 아파트 마당에는 꼬마들의 공놀이가 한창이고 한쪽에서는 세발자전거 경주에 왁자지껄하다.

앞 마당에는 넝쿨장미가 한창이고 바로 옆의 연립주택 어느 집에서 키우는 칠면조 울음소리가 한가롭다.

지은지 오래되어 집 값 오르는 재미는 없겠으나 공동주택치고는 중층짜리가 좀 여유도 있고 덜 각박하게 보인다.

제법 숲이 우거져 봄이면 빠꾸기 울음소리도 한창이고 심심찮게 평소리도 들리는 동산이 집 근처에 있는데 어느날 문득 동산의 한 쪽을 비집고 고층 아파트의 골조가 마치 뉴욕의 마천루를 위협하는 킹콩처럼 솟아 오른다.

택지공급이 한정되어 고층화, 고밀도화가 불가피 하나, 한번 훼손되면 영영 복구할 길 없는 자연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지혜는 없을까?

아파트를 둘러싼 갖가지 말썽 탓인지, 요즘은 짓는 아파트일수록 더욱 스케일이 비정하고 각박하다. 더구나 아파트 마당의 아스팔트 포장과 자동차의 홍수에 밀려난 아이들 놀이터에 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 삭막한 풍경이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생각해 보면, 우선 주거동의 배치가 획일적이고 단조로움에 있다. 이것은 평면구성이 동별로 한가지 형태로 되어 이것을 반복한 결과이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일자형 남향배치의 결과이다. 흔히 채택하고 있는 편복도 형식에서는 거실과 주침실 이

외에는 다른 방은 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여름에는 문도 마음놓고 열지 못하고 살아야 할 형편이다.

두번째는 고층화함에 따른 것이다. 주택사업체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의 분양면적을 「뽑아」내는 것이 수익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고층화 이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에 대한 일반의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도 문제이다. 생활을 담는 환경의 질이 아니라,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편의성 추구하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프리미엄」을 좇아서 후조처럼 옮겨다니기 때문에, 마을이나 이웃이 부재하는 뿌리 없는 삶 때문에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가 없다.

애정이 없는 삶이 어찌 살만한 곳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지극히 경직된 관계법 운용이다. 생활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더 나은 가능성을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의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조례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 인동거리, 측면거리 규정으로는 다양하고 풍부한 옥외공간을 갖는 계획이 힘들게 되어 있다.

외면할 수 없는 공동주택이란 주거 형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 많다.

우선 평면계획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단위 평면의 구성방식이나 각 세대의 집합형식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현재 흔히 보는 편복도형에서 복도측에 침실을 두는 계획은 속히 개선되어야 하고, 차라리 중복도형을 과감히 채택하되, 절감되는 공유면적이나 설비에 대한 비용을 중복도로 인해 불리해진 생활환경의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식구가 적은 소규모 세대는 고층화 하고 규모가 큰 세대는 저층화하면, 전체적으로는 적절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단지 안에 고층, 중층, 저층의 주거가 다양하게 배치되고, 그리고 토지의 이용을 높여 적절한 선까

지의 주거밀도를 높일 수 있게, 각종 법적규제를 완화내지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능력있는 건축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층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다락방 공간을 쓸모있게 꾸며 생활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그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용적율, 건폐율 등을 세분하여 지정하고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 하겠다. 건물간의 인동간격도 건물의 향에 따라 최소한의 일조시간을 규정함으로써, 남향 일변도의 획일적배치가 지양되고, 쾌적하고 다양한 외부공간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조권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높이 제한도 대지의 이용도를 왜곡시키고 있어 개선방향을 연구해야 하겠다. 70년도초 강남지구 개발 초기에 시범개발한 연립주택의 경우를 보면 옆집과는 양측벽만 공유하고 전용뜰을 갖는 정통적 연립주택인데, 증축의 경우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전면이 좁은 남북으로 세장한 대지형태라 수직증축의 손쉬운데, 북측 높이제한 관계로 1층도 이웃경계에서 일정거리를 띄어야 함에 공간과 재료의 낭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법 운용의 획일성의 일면을 보는듯 하다.

단조로운 판상형의 건물, 일자형의 연속배치로 획일적으로 된 외부공간과, 공간적 연계성 없이 각각 다른 주택 사업자에 의해 단절된 아파트 단지를 유기적으로 엮는 도시설계적 계획기법에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살만한 집, 살만한 마을이란 결코 거대한 콘크리트의 집합은 아닐 것이다. 때로는 뒷집지고 어슬렁거릴 수 있는 골목도 있어야 하고, 물끄러미 드러다 볼 수 있는 가게도 있고 아이들이 위협없이 뛰놀 수 있는 빈터도, 한가한 저녁때 동네사람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근래 「빌라」라고 이름하는 고급 연립주택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를 짓기에는 부족한 소규모 택지개발의 한가지 방법이고 더러는 20세대 이상이면 해당되는 분양가격 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도 되는 모양인데, 그 단위세대 규모가 크다는 거부감과 우리의 감각과 다소 동떨어진 형태 이외는 비교적 권할만한 개발형태로 보인다.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린 소규모 집합주택의 개발을 유도하고, 고층화일변도를 탈피하여 저층고밀도 집합주택으로 향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아침신문을 펼치니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다주거주택 개념이 현실화 되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여태까지는 단독주택은 1가구만 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준공 후 요리조리 규정을 위반하여 지하실에도 방을 들여 세를 주고, 2층에도 별도 부엌을 설치하여 여러 세대가 살아 왔으나 재수없으면 관계 당국으로부터 시전명령을 받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서울에서만 20여만 가구가 불법으로 개조된 지하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길거리로 나와 앉아야 할 형편이니 우리의 주택부족은 심각하다.

한 국가의 주거생활의 기준이라 할 국민주택의 규모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말이 많은 모양이나 20평이건, 25평이 되었건 국민주택의 공급을 정부 혼자서 해결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제 손으로 제 살 집을 지을 수 없도록 사회적 기능이, 생산형태가 복잡해진 오늘날, 자본력 있는 민간업체조차 수익성 없는 서민주택 건설은 당초부터 외면해 오지 않았던가?

그 결과가 영세건축업체가 지은 열악한 연립주택으로 나타나고, 기술 수준이 낮은 집장사가 지은 집은 불법, 하자투성이로 원성이 자자하다. 20가구 이상만 사업승인을 받던 연립주택도 5가구나 10가구까지 그 규제대상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나, 양적 부족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양식있는 소규모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한 결국

서민주택 문제는 해결의 사각지대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방이라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주택부족 해결에 보탬이 될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의 조치를 이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이웃에는 부모님과 출가한 딸의 가족들이 아파트 층을 달리하여 부모님은 아래층, 딸의 식구들은 윗층에서 살고 있다. 핵 가족의 편의성과 대가족이 갖는 장점의 조화있는 해결의 일예라 하겠다. 한 가족의 LIFE CYCLE에 의하여 가족의 규모도 부부와의 최소 단위로 출발하여 점차 커지는 확대형에서, 자녀가 다 성장한 50대의 정상형에는 주택의 규모도 안정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는 수축형의 가구에서는 주택규모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지은 집은 인간의 수명보다는 오래 간다. 따라서 가족의 수가 늘고 줄음에 따라 융통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면, 단칸 셋방에서

출발한 살림이 수입이 가장 높은 4, 50대에는 집에 대한 요구가 완성되고 장성한 자식들이 결혼 하더라도 한 지붕 속에서 살게 하면 비싼 돈 들여 아파트를 덜 지어도 되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정도 느끼고 노인들은 덜 외로워도 되니 一石三鳥인 셈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벌써 이러한 류의 집을 많이 짓고 있다고 한다.

다중주택이란 새로운 주거패턴은 주택 수요 해결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핵가족과 대가족제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많은 대규모 주택단지의 개발보다 기존 주택가에서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고층 집합주거에 버금하는 밀도를 가질 수 있는 소규모 저층 고밀도 집합주택개발의 길도 열어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게 다른 조치도 있었으면 한다.

이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건축의 문제 중 일부분에 지나

지 않는다. 우리의 책임은 이 시대가 당면한 건축적 상황의 제문제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전문가로서 우리는 문제해결의 주역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뒷전에 밀려나 제도나 사회 환경을 핑계 삼아 변명해 본들, 더욱 우리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들 뿐이다. 요새 매스컴에 비추어는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에 깊은 좌절과 수치감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가 맡은 소임을 수행하기에 실패하고 피동적으로 한정된 역할에만 안주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설 땅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활환경은 우리 다음 세대로 물려주게 마련이다.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우리의 자세와 생각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부단히 이기심과 타성과 안이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창조행위의 담당자로서, 또한 각 분야의 조정자로서 우선은 자기완성을 위한 각고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